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2020년도 임시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7	2
재적임원	7	2
참석임원	5	0

1.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14:00(회의소집 통보일 2020.09.28)
2. 장 소 : 온라인 회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코로나19” 관계로 다자간 메신저(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이사회 진행(관련근거 : 복구청 복지정책과-9177(2020.03.16.), 2020.0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3. 임원 출 · 결현황
 - 참석인원
 - 이사(5인) : 송영근, 박신자, 한우섭, 이해정, 정창효
 - 감사(0인) :
 - 결석임원
 - 이사(2인) : 황학욱, 이경자
 - 감사(2인) : 박지훈, 이정우
4. 회의안
 - 1) 산하시설 추경예산(안) 심의
 - 2) 아이돌봄사업 센터 재지정 신청 심의
5. 회의내용
 - 대표이사가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 재직이사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오늘의 안건을 보고하다.
 - 대표이사는 오늘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1) 산하시설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 대표이사는 ‘산하시설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 내용설명을 요청함.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과장(민성기)이 추경예산에 대한 내역을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설명하고, 코로나로 인해 비상운영체제로 긴급돌봄 위주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못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 가감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한우섭 이사 : 코로나로 비대면 전환운영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들의 축소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정말 필요한 긴급돌봄은 축소가 없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한우섭 이사의 질문에 대하여 공창복지관 과장(민성기)이 긴급돌봄으로 인한 예산 축소는 없으며 오히려 증액이 되어 현물지원 등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용자들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키트 등을 지급하여 심리적방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정창효 이사 : 대부분의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것 같다고 하며, 다만 오타로 인해 예산 조정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겠다고 함.

○ 대표이사는 정창효 이사의 지적에 대해 오타로 인해 예산 변경하는 일은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다.

○ 이해정 이사 :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걱정이 되니, 직원들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 하는 것에 동의하다

○ 한우섭이사가 재청하고, 정창효 이사가 삼청하다

○ 대표이사 : 산하시설 공창복지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가결하다.

추경예산			비고
2차추경예산(a)	3차추경예산(b)	증감(b-a)	
2,456,794,681	2,426,607,403	▽ 30,187,278	

2)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아이돌봄사업 센터 재지정 신청 심의

○ 대표이사는 아이돌봄사업 센터 재지정 신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공창복지관 과장(민성기)이 복구청에서 아이돌봄센터 재지정 신청에 대한 통지가 있었으며, 내용은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고 2020년 10월 30일까지 재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대표이사 :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며 법인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박신자 이사의 의견을 묻다.

○ 박신자 이사 : 저희 법인이 이사업을 맡아 운영을 하게 된 것은 복구에 어떤 법인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누구도 아이돌봄사업의 운영을 안하려고 해서 저희 법인이 사업을 맡게 되었고, 공덕향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가부에서 부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팀들 중에 저희 법인이 운영하는 돌봄팀 운영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 한번 더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이해정 이사 : 공덕향에서 운영을 한 이후 사업이나 직원들의 처우개선 등 많이 좋아졌다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다.

○ 한우섭 이사 : 지역사회 복지책임을 지고, 또한 지역의 복지현안을 선동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의 설립목적과 책무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 속에서 공덕향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 여겨지며 재지정 신청에 동의하다.

○ 이해정 이사 : 재 위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며 재청하다.

○ 정창효 이사 : 삼청하다.

○ 대표이사는 아이돌봄센터 재지정 신청에 대하여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결하다.

6. 폐회선언

○ 대표이사는 더 이상 다른 안건과 의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쁘중에도 시간내 주어 참석하여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다. 다음에는 꼭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하며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대 기명 날인함.

2020년 10월 15일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대표이사 송영근 (인)

이사 박신자 (인)

이사 한우섭 (인)

이사 이혜정 (인)

이사 정창호 (인)